



경제통통

FOCUS

- 글로벌 기업 CEO 모여 '창조 인재가 살고 싶은 서울' 방향 고민한다

ZOOM IN

-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의 역할, 시민과 함께 찾는다
- 1만 6,078㎡ 개포디지털혁신파크, 24시간 개방된 창조공간 오픈

HOT ISSUE

- 국내·외 바이오 의료 역량 모으는 '제 1회 서울바이오의료 콘퍼런스'
- 서울시, 지자체 최초 「중국투자협력주간」 운영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 01

글로벌 기업 CEO 모여 '창조 인재가 살고 싶은 서울' 방향 고민한다

글로벌 창조 인재가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고, 아시아 지역 R&D 거점으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글로벌 CEO와 경제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서울시는 '글로벌 창조인재가 살고 싶은 도시 서울(Attracting Global Talent-R&D and Creative Industry)'을 주제로 27일(금)에 제15회 「2016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를 개최했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사이백)은 2001년 설립한 서울시장자문기구로, 현재 20명의 세계 유명기업 CEO와 5명의 자문역이 매년 서울시장에게 경제·사회·도시 인프라·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창조 인재가 살고 싶은 도시 서울' 주제로 총회 개최, 14회 총회 통해 301건 자문 받아

이번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는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조 인재 도시로서 서울을 주제로 세계 선진 도시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까지 총 14회의 총회를 개최해 301건의 자문을 받았고 그중 253건(84%)을 시정에 반영했다.

'크리스퍼 포브스(Christopher Forbes)' 포브스 부회장은 서울이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더욱 지원하여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전 세계 45개국에 대한 글로벌 창의성 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4T(▲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영토 자산(Territory Asset))를 소개하며,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보다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도미니크 바튼(Dominic Barton)' 맥킨지앤컴퍼니 글로벌회장은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R&D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건·바이오·의료 혁신거점에 맞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R&D 센터를 서울로 유치하고 ▲서울이 선도적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로서의 입지 구축을 하여 핵심 소프트웨어 및 AI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에서 취업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울의 뛰어난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도시,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인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의 역할, 시민과 함께 찾는다

경제민주화
도시가 되기 위한
서울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이 25일(화) 개최되었다.

제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은 서울시와 동반성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의미 있는 첫 시작인만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앙헬구리아(Angel Gurrí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005년 11월부터 임기를 역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과 구조 변화의 필요성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으며,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OECD가 주도하는 '포용적 도시 성장 캠페인(The Inclusive Growth in Cities)'을 소개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 간 자율 연맹 및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후 김남근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 후, 일반 시민들의 객석 제안 및 질의,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제,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대변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사람 중심의 경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M IN | 02

1만 6,078m² 개포디지털혁신파크, 24시간 개방된 창조 공간 오픈

강남구 개포로에 위치한 舊일본인학교가 ‘도시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혁신과 창조를 통해 해결하는 열린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 면적 1만 6,077m²(4,872평) 규모의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365일, 24시간 개방된 ‘IT중심 창조 공간’, ‘IT 개발자와 창업자들의 꿈의 공간’으로 10월 28일(금)에 문을 열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365일, 24시간 열린 혁신과 창조의 도시과제 해결 공간

개포디지털혁신파크(Gaepo Digital Innovation Park)의 명칭에는 ‘개방·IT·창조·복합’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담겨 있다. ▲빅데이터 교육 ▲연구시설 ▲디자인싱킹 창조교육센터 ▲스타트업 혁신센터 ▲빅데이터 캠퍼스 ▲서울디자인재단 ▲테크숍 ▲커뮤니티룸 ▲다목적실 등 5개 시설 1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IT 개발자, 창업자들의 소망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낸 곳으로,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D-CAMP, 구글캠퍼스 등 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시설과 양재 R&D 클러스터, 무역센터 주변의 IT 업체들과의 협력이 편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 서울시 디지털 비즈니스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5개 시설 15개 공간은 최대 4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열린홀 공간부터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으로 구성되며, 365일 ‘디지털 창조·혁신’을 주제로 한 크고 작은 교육·행사·연구가 진행되는 신성장 창조산업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또한, ▲24시간 열린·소통공간 ▲창조와 혁신을 위한 민·관·학 협력 강화 ▲디지털노믹스(Diginomics) 통합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이라는 4대 운영전략을 통해 ‘IT 중심의 개방적·창의적·혁신적 복합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IT 개발자, 스타트업, 시민 등이 만들어 나가고 특히 IT 분야의 사람들이 도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며 “혁신과 창조의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구심점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이 이뤄지는 디지털 산업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바이오 의료 역량 모으는 '제 1회 서울바이오의료 콘퍼런스'

서울시는 오는 2017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바이오허브'의 기술 중심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0월 21일(금), 제1회 서울 바이오 의료 콘퍼런스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와 공동 개최했다.

'서울의 새로운 도전, Biotech Hub 흥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동북아 바이오 벤처 시티(Bio Startup City)에 도전하는 서울의 미래와 흥릉지역 일대에 조성하는 '서울바이오허브(2017년 6월 개관 예정)'의 성공 전략이 집중 논의되었다.

**보스톤 메디컬 대표 등
국내·외 창업·의료·
투자자 한 자리,
'서울바이오허브' 성공
전략 논의**

이번 콘퍼런스는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글로벌 동향 ▲흥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발전방향 등 3개 세션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조연설자는 성공적인 이민 창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보스톤 메디컬'(Boston Biomedical)의 창리(Chiang Li) 대표와 우리나라 벤처 선구자인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의 이민화 이사장으로, 각각 '바이오의료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바이오 헬스 창업생태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1개 기관·단체는 '서울 바이오 의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 서울의 바이오 의료 창업 인프라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창업에 성공해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창업 기업이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협회, 한국약품수출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시는 "'서울바이오허브'가 국내외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기술지원,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하여 흥릉 일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 클러스터가 협력하여 '서울바이오허브'와 상생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OT ISSUE | 02

서울시, 지자체 최초 「중국투자협력주간」 운영

중국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거나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2016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이 10월 17일(월)~18일(화), 양일간 포시즌스 호텔(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148개 국내 기업,
56개 중국투자자 참여,
투자협력포럼,
1대1 수출 상담회 진행**

「2016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중국 정부 관계자 및 투자자, 국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는 물론 148개 국내기업과 56개 중국 투자자가 참여해 1대1 상담회가 진행되는 등 검색국면에 있는 한·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경제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진출 A부터 Z까지를 설명해줄 한·중 투자협력 포럼’과 중국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위한 ‘서울 기업-중국 투자자 1대1 상담회’, 서울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서울 시정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투자협력 포럼에서는 ‘중국의 투자 환경 및 진출전략 소개’, ‘중국 지방 정부 및 민간 투자프로젝트 소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사례’ 등이 소개되었으며, ‘1대1 상담회’에서는 서울시 유망산업인 문화콘텐츠, IT, BT 산업 관련 148개 서울기업이 참여하고, 중국에서는 유력 VC(벤처캐피탈) 및 관련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향후 중국투자협력주간
정기 운영해 투자
활성화와 국내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 지원**

또한, ‘서울시 주요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중국부동산 산업협회 부회장, 중발실업 그룹 회장 등 부동산 투자가를 대상으로 DMC 랜드마크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프로젝트, 동북권 복합개발 등 주요 시정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투어도 실시했다.

시는 “올해 처음 개최된 「2016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서울기업과 중국투자자 양쪽 모두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의미 있는 자리라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중국투자협력주간을 매년 개최해 서울시에 대한 중국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이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